



박정미 | 강정고령보 문화해설사
(sopia0409@hanmail.net)

보(伏)문화 시대 활짝 열리다

‘4대강살리기사업’이라는 중대한 국책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그 결과 4대강에 16개의 보(伏)가 만들어졌다. 강정고령보는 16개의 보중 가장 규모가 크고 낙동강의 중심에 위치한 명품보이다.

강정고령보가 위치한 낙동강은 남한에서 가장 긴 강이며, 한반도에서는 압록강 다음으로 길다. 고·근대사를 통해서 보면, 역사적으로는 신라와 가야의 국경으로 천년의 신라문화와 독특한 가야문화가 꽃피우는데 큰 역할을 하였고, 지리적으로는 영남의 대동맥으로 해상교통과 조운(漕運)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근대에 이르러서는 한국전쟁 당시 유엔군의 최후방어선으로 치열한 격전지로 국토를 지켜낸 마지막 보루이기도 하고, 산업화시대 경제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현재 강정고령보가 세워진 곳은 낙동강과 금호강의 합류지

로서 예부터 수운(水運)의 요지 역할을 하였다. 강정진(江亭津)에는 수많은 상선과 일반 선박이 정박하였고, 두 강이 합쳐지면서 자연스런 언덕이 형성되어 풍광이 빼어나게 아름다워 신라왕의 소유처(所遊處)로 삼았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김해에서 소금이나 어패류를 실은 수십 척의 배들이 돛을 높이 올리고 현재보다 몇 배나 넓고 깊었던 강을 따라 유유히 상류로 오르는 광경을 상상해보면 즐겁다.

지난해 10월 22일 보 개방행사를 한 이후 일부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을 일반에게 개방하였고 그 후 많은 분들이 보를 보러 오셨다.

‘과연 보가 잘 만들어졌을까’, ‘강이 어떻게 변화되었을까’, 저마다 기대반 걱정반의 마음을 갖고 오셨다. 7월말 기준으로 연인원 80만명이 강정고령보를 다녀가셨다. 국민들이 4대강



탄주대, 가야금과 가야금 열두 줄을 모티브로 형상화



고정보인 물통금 위로 물이 흘러내리는 모습



강정고령보 Design Concept, 지역의 특색인 가야토기와 가야금, 대구의 과학과 섬유패션을 형상화

살리기사업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얼마나 큰지를 매일매일 체감하는 나날이었다.

개방 이후 10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처음 몇 달간은 단체방문객이나 개인방문객들에게 강정고령보의 사업현황 브리핑과 단순한 시설 안내하기에 급급했다. 오시는 분들이 보가 어떻게 만들어졌나에 관심이 집중됐기도 했지만 투어시간을 빠듯하게 잡고 오는 단체 방문객들이 많아 강변문화라든지 낙동강문화에 대해서는 입도 병긔해보지 못하고 하루 종일 물밀듯이 밀려드는 방문객들에게 사업현황 설명하기만도 벅찬 하루하루였다.

고심이 되었다. 보와 연관된 수자원과 친수 이야기, 강에 얽

혀있는 강문화 이야기, 장구한 역사를 품고 있는 낙동강 이야기 등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 그런 것은 언제 해야 하나... 그래서 보 체류시간이 좀 긴 단체나 문화와 연관된 기관, 역사·관광 관련학과 학생들, 또 일반인들 중에서 문화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오면 틈 나는 대로 '강과 문화와 수자원'에 대한 이야기를 곁들이기도 하였다. 새로 생긴 보를 구경 와서 수자원과 문화에 대한 해설까지 듣게 되어 즐겁고 기분 좋다는 반응이 많았다. 그럴 때마다 문화해설사로서 가야 할 방향이 보이는 것 같아 설레고 뿌듯했다.

대관절, 문화(文化)란 무엇이길래...

태평양전쟁 때 미군이 일본 교토를 폭격하지 않은 것은 교



아이스하버식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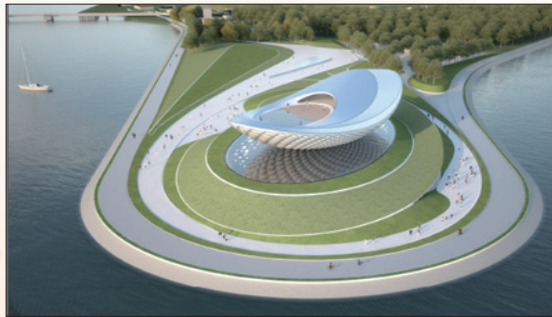


자연형어도

토가 일본 문화의 총본산이었기 때문이며, 영국이 인도를 식민지로 삼고 있으면서도 차라리 인도를 잃을지언정 셰익스피어와 인도를 바꾸지 않겠다고 한 것.

한국전쟁 당시 연합군에 쫓기는 인민군들이 가야산에 숨어 들자 미군사령부는 가야산에 있는 해인사 공중폭격작전을 단행하였다. 당시 한국군 편대장(김영환 대령)은 명령을 받고 해인사 대적광전 앞마당 상공을 빙빙 돌다가 차마 해인사 팔만대장경을 잣더미로 만들 수 없어서 기수를 돌리고 폭격중지를 명령하였고 종전 후 군사재판에 회부되기도 했다.

이것이 문화가 가지고 있는 거대한 힘이 아닌가.



대표문화관. 4대강을 대표하는 문화관으로 강문화의 메카

보를 개방한지 1년이 안된 지금 많은 변화가 있었다. 개방 초기에는 관련 기관이나 어른신들의 단체 방문객이 주를 이뤘지만 두달 세달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가족이나 연인, 친구 등 자발적인 일반 방문객들이 늘어나고 있다. 자전거도로가 개통되고 생태하천공원이 예쁘게 꾸며지고, 다양한 문화행사가 연이어 열리고 있어 이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꾸준히 보를 찾고 있는 것이다. 또 주5일제 수업이 시행되어 주말이면 자녀들과 현장학습을 겸한 강문화를 즐기는 젊은 세대들도 꾸준히 늘고 있다.

생각난다. 작년 가을쯤 4대강살리기사업 좌담회에 참석했

을 때다. 세대별로 2~3명씩 참석하였는데, 세대별로 뚜렷한 성향이 나타났다. 이중 대학생들의 성향이 좀 놀랐던 기억이 난다. 4대강살리기사업에 대해 생각해본 적도 없고, 생각할 필요성도 못 느끼고, 앞으로도 그렇다고 냉담한 표정으로 단호하게 말하였다. 우리나라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편협한 성향을 가지고 있었나 새삼 느끼게 되었다.



하빈생태공원 내 자전거도로

얼마 전 대학생들의 팸투어가 있었다. 학생들이 팸투어를 오면 어른신들의 방문 때와는 좀 다른 마음이 된다. 어른신들은 4대강살리기사업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지를 갖고 오시지만 학생들은 아무것도 적히지 않은 백지노트를 가지고 그냥 온다. 그래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백지노트에 단 한 줄만이라도 그들의 가슴으로 느낀 무언가를 직접 적어 넣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목소리가 높아지고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게 된다.

그날, 대학생들과 상황실에서 사업현황에 대한 설명을 하고 공동교로 이동하는 중이었다. 강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오는 공동교를 걸던 중 한 여학생이 친구에게 속삭이는 게 들렸다. “여기서 데이트하면 참 좋겠다~”

아~ 얼마나 가슴이 뛰던지.

데이트하기 좋은 곳... 이들의 마음에 드디어 강이, 보가 들어가기 시작한 것이다.

4대강 16개 보가 모두 완공이 되면 이수와 치수는 물론이



공사 전 모습(사진 좌)과 공사 후 모습(사진 우). 강폭도 넓어지고 물그릇에 물이 가득 담긴 모습.



고, 생태와 친수, 역사와 문화가 접목되어 새로운 강문화가 점점 자리 잡게 될 것이다. 권력이나 자본으로 일시에 강제적으로 만들 수 없는 것이 문화다. 사회구성원에 의해 가꾸어지고 다듬어져 점점 뿌리가 튼실해져 가지가 자라고 잎이 무성해지는 것이 참문화의 모습일 것이다. 지금 4대강에 강문화의 뿌리가 내려지고 가지가 점점 자라나고 있다.

다양한 사람들이 강으로 오고 있다. 평생 농사를 지으며 하늘만 쳐다보며 산 어르신들이 오시면 물을 본다. “물 참 많다 ~ 참 잘했네~”

삶의 무게를 안고 굽이굽이 고개를 넘어야 하는 청장년들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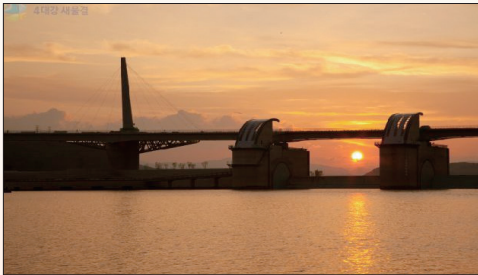
시원하게 뿜린 자전거도로를 달린다. 그 길에서 새로운 힘을 얻어 다시 삶의 현장으로 달려간다.

더 젊은 청춘들은 달콤한 꿈을 꾀다. “데이트하기 좋은 곳 이네~”

나는 이것을 -보(伏)문화-라고 부른다.

보문화... 안(安)락(樂)미(美)래(來). -편안하고 즐겁고 아름답다워 또 오고 싶은 곳-

강정고령보가 보문화의 중심지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면서 매일매일이 무척 행복하다. 🌊



낙조가 아름다운 강정고령보(사진 좌), 야간조명이 밝혀진 강정고령보의 야간경관(사진 우)

강

박태진 |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2동

실핏줄처럼 얽혀 있는
문화와 소통의 공간
상상력을 더해
예술과 문화가
숨 쉬는 공간이요
여가 공간

인간과 자연
자연과 문화
소통의 수단
소통의 주체
너와 내가
소통할 수 있는 공간적 토대

부드러운 바람
자연의 감촉이
내 뺨에 스쳐 지나가고
治水(치수)
利水(이수)
親水(친수)

여가 욕구의
휴식과 놀이 공간
캠핑 수상 스포츠 트레킹 사이클
여러 가지 문화 여가공간의 조성과 정보를
쉽게 찾아 제공하여
행복한 꿈 아름다운 꿈을 꿀 수 있는 휴식과 여가공간이 강이어라 🌊

